만남-1
Friendship-1

김희곤/홍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Gon

지나간 일에 대한 감상이나 과정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다. 사회에 대한 불만, 참여한 사람에 대한 아쉬움, 모두다 알고 보면 건축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는 것이 세월의 흔적 사이로 적(積)층되는 깨달음으로 증명된다. 어떤 일이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은 공존한다. 양면성과 다원성사이에서 건축가 본인의 투철한 정신세계 및 철학이 지속적인 건축과정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만남-1은 사무실을 십여 년 꾸려오는 중 필자 스스로 마음을 제일 많이 비우고 임했던 작업이었다. 처음부터 소박함, 청빈함, 평범함, 수졸, 비움, 없음... 이라는 단어와 내용을 음미했던 작업이다. 선조들의 집짓기와 현대인의 집짓기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선조들은 일생에 한번 집을 짓는 일이 중요한 행사였다. 집을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장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식은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형편에 맞게 가족, 친지, 마을사람의 도움으로 집을 지었다. 집을 짓는 과정이 마을 공동체 축제의 행사이자 마을친교의 장소였다. 훗날 후손들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대들보에 넣어 두는 자손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해마다 초가지붕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자연을 거스르거나 스스로 과시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고 이웃집과 조화되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필요한 만큼의 재료로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만들었다. 삶에서 주택은 상위차원도 하위차원도 아닌 인간과 동등한 삶의 동반자였다. 신분과 삶의 형편에 의해 달라지긴 했어도 삶의 깊숙한 곳에 내재된 주인의 인품과 부합되는 주택이었다. 높은 인품은 스스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것이며 이웃으로 베푸는 인정이었다. 주택의 공간도 흐르는 물처럼 사회와 교류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건축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되는 과정에 물질문명의 독점으로 전통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 내재하는 전통적인 삶의 근간은 녹아있다. 오늘날 건축물은 부동산의 가치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부의 대변자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평생 개인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는다. 도시에서 건물은 부의 수단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행복의 수치가 같아지며, 한정된 대지에 최대한의 평수만 지으려는 부의 산출방식과 건물평수가 부합되면서 우리네 주변환경을 온통 욕심으로 채워지고, 인간의 순수성은 점점 더 밀려나게 되었다.

특히 소규모건축은 아주 저급하든지 아니면 고급으로 분류되었다. 소규모건축은 건축가의 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누구나 쉽게 설계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무너지지 않고 쉽게 바꿀 수도 있어서 관심밖으로 밀려났으며, 전문가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건축의 가치가 전도된 채로 무법천지 속에 남아있다. 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곤 집장사의 손맛에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소규모의 건축물을 할 때마다 부닥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소규모일수록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건축가는 큰 규모일 때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역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건축가의 정신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푸념처럼 건축가는 권력과 부의 시녀인가? 우리의 전통이 고급주택 속에서만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얼마전 에도 서울 인근 전원지역에 주택과 작업실을 마련하려는 모 대학 교수 부부와 설계에 대한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적 가치와 주택의 의미에 대해서는 꽤 논리가 담겨있으나 집을 짓는 디테일과 세세한 작업과정, 자재선정 등 실질적인 이야기에서는 집장사에게 통용되는 공사비에 귀와 눈이 멀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전문가가 무조건 비싸게만 짓는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공사비에 맞는 시공재료와 마감디테일을 설명하면 집장사가 지은 겉만 번듯한 집에 눈이 멀어져 있었다. 문화는 가지고 싶은데 그 문화는 잘못된 허영이나 거짓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건축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의문이 남는다. 선진국은 전문가의 사회참여 내지는 봉사의 기회를 전문가의 덕목으로 중요

시한다. 일년에 한 프로젝트라도 소규모건축 저렴한 설계비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교통비 값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난하다고 저급한 문화는 아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저급함이나 겉포장이 생략되고 서로간의 상식과 관심이 따뜻한 진실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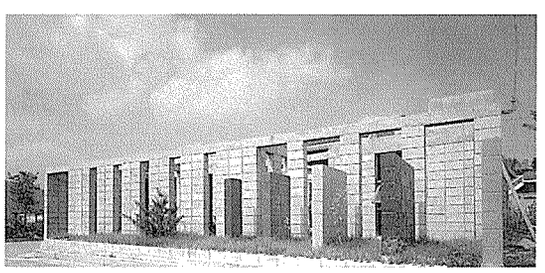
만남-1이 위치하는 전원주택지에도 빈대지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건축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서울의 잘못된 가치를 그대로 포장해서 지방으로 가져오다 보니 시골사람이 무섭다, 옛날 시골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 여기서 정작 병이 든 사람은 누구일까?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서처럼 나만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웃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진정 이해했는지? 전원의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와야하는지 반문해봐야 한다. 시골마을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돋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 살 것인지의 삶의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지역의 공기와 물, 빛과 나무 만으로 살 수는 없다. 내가 사는 지역의 주체인 이웃과 공존해야 한다. 건축주는 아내와 지(知)인의 지아비로서 그 지역에서 토목회사를 경영하면서 마침내 조그만 사옥 겸 숙소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여러 차례 만나서 인간적인 정을 나눴던 분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역과 작업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건축주로서 더 없이 좋은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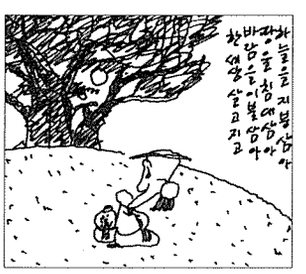
3층 규모로 건물을 계획하던 중 IMF의 위기로 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건축주가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콘센트건물 (평당 60만원)로 최소 사무실만 마련하겠다하면서 건축주가 직접 알아서 짓겠다고 말했다. 그때 문득 기억 속에 희미한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제일 저렴한 농가의 창고 같은 집을 지어볼 수 없을까? 두 분의 건축주가 알차게 꾸려온 회사의 보금자리를 값싸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는 수수하지만 품위가 있는 우리네 어머니 같은 집을 지어 보고 싶었다. 건축가의 제안에 있는 돈을 거의 맡긴 상태로 신뢰가 밑천이 되었다. 인생은 만남의 매듭을 푸는 일이라 생각했다. 건축주는 두 분이었지만 한 분이 나서서 협의하고 다른 한 분은 철저히 동료를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상호적인 믿음이 들었다. 건축주는 두 사람의 만남에서 공동의 목표인 회사를 성장시키는 이상에 부합되는 생명의 나무를 생각했다.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건축으로 옮겨 놓고 싶었다.

IMF의 위기는 건축가에게 다양한 설계의 경험을 요구하였다. IMF전 복합기능, 예컨데 사무실, 자재창고, 기숙사 등 복합기능의 설계가 불가능하였다. 허가가 난 후 다시 최소규모로 재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주와 상의 후 정말 콘센트 가설현장 사무소 짓는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재료와 디테일이 저절로 결정되었다. 물류비용 뿐 만 아니라 그 고장 사람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은 디테일을 합리적으로 조합하였다. 토목회사가 사용하다 남은 녹슨 철근, 콘크리트, 자갈, 동네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콘크리트 블록, 공사장에서 쓰다 남은 목재, 합판, 집섬 보드보다 값싼 함석판을 사용했다. 도시에서 보는 노출콘크리트가 아니라 다소 어눌한 콘크리트 면이지만 그대로 노출시켜서 질곡의 편안함을 유도했다. 시공과정에서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또한 쉬운 디테일로 처리됨으로서 거친 시공의 손맛을 그대로 공간으로 가져갔다. 그것이 또한 시골 전원마을의 여유와 만만함, 따뜻함으로 와 닿을 수 있었고, 언제나 열려있는 집 마당이 언제라도 사람을 반기는 풍족함을 담을 수 있었다. 만남 - 1 은 IMF의 산고 속에서 탄생하였다.

우리 전통 속에는 두레정신이 있다. 마을 사람 각자가 조금씩 도와서 하나의 집을 만든다, 거기에는 각자가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서로서로 도왔다. 시공과 디테일에서 다소 어설프더라도 거기에는 풍만한 여유와 공동체의 정신이 공간에 남아있게 된다. 집은 사는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이고 짓는 사람의 정신이 배어나기 때문이다. IMF는 모든 사람에게 비용절감이라는 삶의 단순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단순함은 풍만함과 여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복잡함의 반대말이다. 간결함, 소박함, 검소함, 수졸, 청빈함과 동의어가 된다.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함을 갖추고 나머지는 자연으로 채우고, 그래도 남는 것은 인정과 사람의 만남, 그 만남의 따뜻함으로 채우면 될 것이다. 자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일부로 순환하는 것이다. 삶의 활력이 넘치려면 가정이 화목하고 아웃간 만남이 건전하고 서로간 정이 넘쳐야 한다. 정이 넘치려면 서로가 서로를 적당히 공유하고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전원에서의 생활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막고 닫으면 썩고 탁해져서 결국 생물이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최소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공기, 빛, 바람, 나무등 자연으로 채우는 일이 되었다.





평당 100여 만원의 최소공사비로 즉 조립식 창고 짓는 비용으로 집을 지었다. 이 집에는 작은 마당과 고창과 담장과 나무가 있다. 작은 마당도 토목 공사 때 버리는 나무와 포장용 자갈을 깔았고, 고창은 빛을 조절하여 실내공간을 여유롭게 하고, 담장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나무는 생명을 상징한다. 값싼 재료는 인식과 문자의 피해자이지 본래의 의미와 속성은 아니다. 재료는 그 만의 화법으로 답하는 것인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글 속에 " 인간도 세상이라는 알을 깨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 다른 세상은 신의 세계이다. 그 신은 아브라삭스 이다. 아브라삭스는 선과 악의 세계다." 라고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 동안 한쪽에만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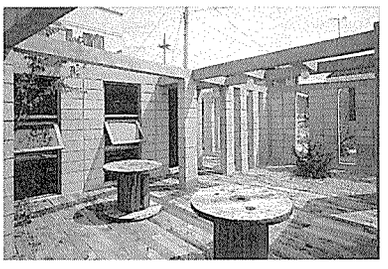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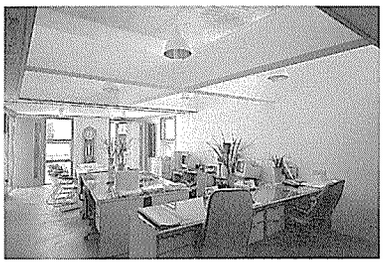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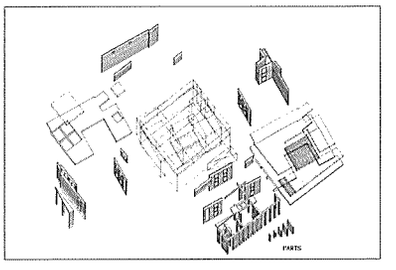
건축 철학이라고 할 때 다른 의미로 건축의 가치관으로 줄여서 질문해 보자. 건축의 가치관은 인간의 건축에 대한 관점의 이야기이다. IMF의 상황에서 가장 깊게 직면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노자는 "화는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 허물은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했다. 가난함은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관점의 폭을 넓혀 준다. 최소함이 최대함이 될 수 있다.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풍족함, 거침과 서투름이 만들어내는 높은 완성미, 비워둠으로서 채워지고 내어줌으로서 받게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디테일의 세련됨을 잊어버릴 때 진정으로 완성된 디테일이 되고, 한 그루의 나무로도 농림을 앞지르고 어수룩함이 지혜를 이기는 우리네 전통의 정신이 지향하는 근거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을 때는 누구나 몸둥아리만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 떠남 뒤의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욕심과 명성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이 남는 것이다. 결국 이타의 정신이 남는 것이다. 정신의 출발점과 근원을 중재, 조정하는 자가 생각한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값비싼 자연을 만나서 그 자연을 섬기고 싶었다. 부족함과 가난함은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고 인간의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던 것 같다. 얼마 전 건축주와 한잔할 때 건축주의 표현을 빌리면 "손님들이 건물외부를 보면서는 시큰둥하다가 들어와서는 아! 한다는 것이다." 말인즉 미완처럼 보이는 건물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발견했다고 생각된다. 이 가치는 처음부터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 전부터 만만하다는 단어를 생각한다. 노자의 말에 " 바람은 형체가 없어도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고,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형체가 변하지만 능히 산이나 언덕을 물 속에 잠기게 하는 힘이 있어 연약한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라고 했다. 자연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지만 속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름지어져 있는 디테일 공법의 한계에 갇혀서 스스로의 상상의 날개를 하나씩 꺾었는지 모른다. 외국 유명건축가의 재료, 공법, 디테일의 마감에 아예 질려서 싸구려 건물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생각의 싹도 잘라버렸다. IMF는 진정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세기말 혼란한 상황 속에서 허약한 우리의 정신적 가치는 외부의 여건에 의해 다시 정립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의 중심사상은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나와서 꽃을 피웠다. 전쟁으로 황폐한 땅에도 꽃이 피고 생명이 성장한다. 태풍이 불어 모든 것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혀도 이름 없는 들풀은 제일 먼저 일어난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잃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잃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찾는 기회가 온 것이다. 혹시 우리가 낡은 끈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 보기보다는 끈을 놓아버리고 다른 세계로 가는 편이 빠를 것이다.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더 잃을 것은 없다. 물이 썩으면 썩을수록 맑아짐의 시작이요, 일이 없다는 것은 일이 있을 수 있음의 시작이다. 온갖 정실에 의해 수주와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원칙과 규정에 의해 선정되기 위한 시작이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미래는 위장을 줄이고 적게 먹고 최소한의 열량으로 정신을 맑게 하여 세상을 넓고 깊게 바라보는 즐거움에서 찾아야 한다. 유럽의 어느 건축가는 현상설계에 당선되기 직전까지도 사무실에 복사기가 없었다고 들었다.

나는 아직도 부자인 것 같다.

밥을 적게 먹는 한이 있어도 정신은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